

『백운화상초록조직지심체요절』과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

Jikji and the typographic culture of early Choson Dynasty

이 희 재 (Lee, Hee-Jae)*

◁ 목 차 ▷

- | | |
|---------------------------------|-------------------------|
| 1. 서 언 | 3.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 |
| 2. 고려 말 활자 인쇄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 3.1 조선 초의 인쇄 문화 전반 |
| 2.1 고려의 인쇄 문화 전반 | 3.2 조선 초기 활자 인쇄 |
| 2.2 고려 말의 활자 인쇄 | 4. 고려 말 조선 초의 인쇄 문화의 의의 |
| 2.3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출현 | 4.1 기술적 측면 |
| 2.4 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 4.2 문화사적 측면 |
| | 5. 결 언 |
| | <參考文獻> |

< 초 록 >

본 연구는 지난 천년의 으뜸가는 발명으로 간주되는 활자 인쇄의 의미에 세계 첫 시도로서의 가치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초창기 활자 인쇄 문화를 대입시킴으로써 세계문화사 속에서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앞서서 각인기(puncheon)와 자모(matrix), 주형(type mold)을 이용한 활자의 주조, 조판, 인쇄의 과정을 제대로 구현하면서 복제와 주형(type mold)의 개념을 형성하고 기술을 실현시켰다는 점이다.

문화사적인 의미는 동 시대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된 인쇄문화를 통해 동양에서는 물론 세계 인쇄사 및 문화사의 측면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동양학자인 모리스 꾸랑을 비롯한 많은 구미의 학자들이 비록 제한된 시각이기는 하나 이 시기 한국의 활자 인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독창성과 장점에 걸 맞는 위치를 찾기 위해 좀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要語 : 적지, 인쇄문화, 활판인쇄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hee0612@sookmyung.ac.kr)

접수일: 2004년 8월 16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This study is planned to identify, in the world cultural history, the place of our early typographic culture include *Jikji*, the first existing ancient typographic book.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our korean technology of typography preceded the occidental one, which realized the typographic precess; puncheon, matrix, type mold, composition and impression.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tion of this early typography is kept on eye, with its activated printing operation at that age, not only in oriental academic world but also in occidental world. Many occidental scholars like Maurice Courant have made study of early korean typography, even though they have certain limited points of view. To take a reasonable place of its own creativity and merits, we must develop our research with more worldwide viewpoints.

Keywords : *Jikji*, printing culture, typography

K C I

1. 서 언

종이라는 매체의 발명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자극하여 많은 정보의 유통을 요구하게 되었다. 종이와 일찍부터 기본적인 정보 미디어로 자리 잡게 된 동양에서 인쇄의 개념이 먼저 형성되었다든지 종이와 유입된 이후 세계적인 발명으로 자리 잡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된 것 등은 이 논리를 잘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달리 그의 문화내지 문명을 갖게 된 데는 인간 특유의 사유 생활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능력, 더 나아가 그것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갖게 되면서부터였다. 말하자면 단순하고 동물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다 발전되고 다원적인 사상의 표현, 전달, 그리고 보전에 대한 관심이나 요구가 인류문명을 탄생케 한 것이다. 이 인간본연의 관심과 욕구가 인류역사상 최대의 효과를 올린 것이 바로 인쇄술의 발명이었다.

이런 점에서 정보사회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이듯이, 그것이 목판 인쇄건 재질의 종류를 불문한 활자 인쇄건 전반적인 인쇄문화의 탄생은 '하나'로부터 '그것을 복제 한다'는 새로운 시대를 가르는 패러다임의 출현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에서의 인쇄의 혁명의 시기는 15C로 잡고 있으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보다 직접적인 배경은 목판 인쇄 및 흙으로 만든 교니활자(膠泥活字)를 비롯한 여러 활자의 발명 또는 사용의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목판인쇄는 다량의 복제라는 인쇄의 개념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실행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다만 한 자 한 자 글자의 조합이 아닌 한 면 전체를 하나의 목판에 새겨야 하는 특성 때문에 한 종류의 문헌을 다량복제하기에는 편리했지만 많은 종류의 문헌을 간행하기에는 일일이 판을 조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고 이 점이 그 의의를 반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복제'라는 개념의 최초의 발상은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될 중대한 발명이었다.

‘글씨를 새긴 목판은 일그러지고 결손 되기가 쉬워 천하의 도서를 모두 찍을 수 없으니 동활자(銅活字)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고 이를 널리 전하고자’ 했던 태종의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목판인쇄가 갖는 단점 때문에 활자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복제’는 복제이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써의 복제 기술로 탄생된 것이 활자 인쇄였으며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실현시킨 곳이 바로 우리의 한반도이다.

비록 기술적 측면이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구텐베르크에게 발명의 자리를 내주고 있으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복제’의 개념형성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현에 이르기까지 가장 먼저 이를 시행시켰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 우리의 것인 이상 ‘적지’라는 주제에 대한 좀 더 심도 깊고 진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나 단순한 사건의 나열을 뛰어넘어 보다 폭넓은 기술 문화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난 천년을 마무리 하면서 그 으뜸가는 발명으로까지 꼽힌 활자 인쇄가 갖는 의미, 즉 ‘복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의 첫 시도였던 ‘적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초창기 활자 인쇄 문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되, 보다 폭을 넓혀 같은 의미로 활용된 목판인쇄를 비롯한 당시의 우리나라의 인쇄문화 전반의 분위기를 부각시킴으로써 세계문화사 속에서의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자 한다.

2. 고려 말 활자 인쇄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2.1 고려의 인쇄 문화 전반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과 방법만이 존재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도서 및 인쇄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중요하게 거론되어 더욱 그 가치가 돋보이는 것들이 동양의 종이, 목판 인쇄, 그리고 활자 인쇄이다. 종이의 발명은 가장 적절한 매체로서 도서 기술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쇄라는 개념과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경우에도 12-17C 종이가 도입된

후 인쇄의 발명과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목판인쇄의 발생시기에 대하여는 여러 동서양 학자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7세기 후반부에서 8세기 전반부가 설득력 있게 거론된다. 또한 현존하는 3종의 초기목판인쇄본은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중요한 증거물들이라 할 수 있다.

868년의 간기가 확실히 밝혀진 상태에서 이미 상당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하여 목판인쇄의 출현이 이보다 훨씬 앞섰을 것을 시사하여 주는 중국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盤若波羅蜜經)』, 간기는 적혀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770년으로 공인된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百萬塔陀羅尼經)』, 그리고 706-75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그것이다. 즉 후자(後者)의 2종은 그 도각술(刀刻術)이 목판인쇄의 초기단계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보다 다소 앞선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며, 그것은 2-3C 후의 전자와 같은 유연한 기술의 목판본의 출현과 시기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원을 8C 기점을 전후한 무렵으로 보는 견해¹⁾ 혹은 그 보다 다소 앞선 7C 중반 무렵으로 보는 것이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목판인쇄는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동양 삼국의 도서문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활자의 출현 이후에도 총체적인 숫자로서는 더 많은 판본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이렇듯 일찍부터 시작된 “찍어내는” 도서의 개념은 활자로 찍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에도 분명 크게 작용되었을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종이가 그 질의 우수성으로 중국에서 환영받았듯이 목판인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현존 최고(最古)의 목판본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장경(大藏經)과 같은 대대적인 사업을 이룩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열정과 기술의 축적이 ‘활자를 이용한 인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의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는 ‘복제하여 인쇄’ 한다는 맥락에서 거의 동일한 작업으로 간주되었을

1)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1978), p.29.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판본의 종(種) 당 발행부수 면에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숫자적으로 많았던 중국에서의 목판 인쇄와 활자 인쇄 사이에서는 어떤 연관성이나 동일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15C 초에 빈자의 성서(*Biblia pauperum*)를 비롯한 목판본이 출현하여 현재 33종 100여권이 전해지고 있는 서양의 경우에는 활자 인쇄의 출현과 더불어 15C 이후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목판 인쇄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복제’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발명으로 구텐베르크가 그토록 평가를 받는다면 무엇보다도 그보다 무려 7세기를 앞선 현존 최고(最古)의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야말로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세계 학계에 ‘공인된 최고본’으로 확정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적어도 적지에 할애한 만큼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경의 출현연대를 706년에서 751년 사이로 보는 이유는 간단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즉,

첫째, 이 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당(唐)의 측천무후(則天武后) 말년인 장안(長安) 4년(704)경이며 우리나라에는 그 2년 후인 신라 성덕왕(聖德王) 5년(706)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상한연대로서의 706년 무렵은 거의 정확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이 경이 들어있었던 석가탑은 신라 경덕왕(景德王) 10년(751)에 불국사를 중건할 때 새로 세워진 것인데 그 후 석가탑이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경문이 들어 있는 사리함(舍利函)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보고 하한연대를 751년으로 잡는다.

셋째, 경문 안에 증(證), 지(地), 수(授), 초(初) 등 4개의 변종(變種) 무주제자(武周制字)가 수록되어 있는데 무주제자는 당의 측천무후가 그의 집권 시(690-704) 글씨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그 후에는 별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사후 약 125년 정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며 8C 전반의 가설을 세우는데 공헌이 된다. 문제는 우리에게 충분히 통할 것 같은 이것들만으로는 세계적으로 공인 받기에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후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똑같은 필적으로 쓰여진 706년의 황복사탑동함명(皇福寺塔銅函銘)을 제시한 연구가 나왔다²⁾. 육안으로도

확실히 동일인의 동일한 필적임을 알 수 있어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데 외국 학계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국제적 기관에서 감정을 첨부하여 공문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신라에서 시(詩)의 인쇄하였다는 기록 등을 통해 통일신라말기까지를 중국의 당(唐)조와 같은 초기목판인쇄의 보급과 확립기간이라고 한다면 고려조에 이르러서는 목판인쇄술의 정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 전 중국의 왕조를 통해 가장 훌륭한 목판본을 만들어낸 송조와의 연관성도 무관한 것이 아닌 듯 보여진다.

고려 초는 본격적인 인쇄사업으로 들어간 오대(五代, 907-960)의 영향을 받아 9경 3전(九經三傳)을 국자감(國子監)에서 찍어내고 이후 북송(北宋, 960-1127)의 『개보척판 대장경(開寶勅板 大藏經)』, 『군경정의(群經正義)』 등의 국자감본(國子監本)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남송(南宋, 1127-1280)의 사가본(私家本) 및 상업적으로 유통되던 서사각본(書肆刻本) 등 인쇄문화에 있어 양질 면에서 가장 우수했던 송조의 융성과 발전이 고려의 인쇄문화와 직결되었다. 특히 송 태종(太宗) 단공(端拱)원년(988)부터 1003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교정을 보면서 목판으로 인쇄한 『주역정의(周易正義)』 14권(卷), 『상서정의(尙書正義)』 20권, 『모시정의(毛詩正義)』 40권, 『예기정의(禮記正義)』 70권, 『춘추좌전정의(春秋左傳正義)』 36 권, 『주례소(周禮疏)』, 『의례소(儀禮疏)』 각 50권, 『공양소(公羊疏)』 30권, 『곡량소(穀梁傳)』 12권, 『효경정의(孝經正義)』 3권, 『논어정의(論語正義)』 10 권, 『이아소(爾雅疏)』 10 권 등 총 12 경 345 권의 사업은 이어지는 중국의 전조³⁾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년도가 확실한 최초의 목판본은 고려 목종(穆宗) 10년, 1007년에 총지사(總持寺)에서 간행된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비해 기술상의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이 경은 간기가 실린 최초의 목판본이라는 의의 외에

2) 吳國鎮, 『韓國의 古印刷文化』(청주: 도서출판 일산, 1994), p.36.

3) 屈萬里·呂彼得 著, 沈偶俊 譯, 『圖書板本學要略』(서울: 文成社, 1966), pp.55-61.

ibid, pp.62-80.

도 도서관문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간주될 수 있는 상당히 발전된 상태의 목판삽화가 수록됨으로써 더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도서관의 초기의 목판삽화라는 점에 서, 그리고 중세 서양 도서관의 성화(聖畵) 채색삽화와 비교 연구가 될만한 좋은 주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조를 대표할만한 인쇄는 팔만대장경으로 대변되는 대장경의 조조(雕造)이다. 송조 초기 태조(太祖)의 칙명(勅命)으로 개보(開寶)4년(971)부터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8년(983) 사이 촉(蜀)의 성도(成都)에서 개판된 개보칙판대장경(開寶勅板大藏經)이 고려조에 들어온 것은 성종(成宗)10년(991)한언공(韓彦恭)에 의해서였으며 이것은 고려대장경의 조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질적인 면에서는 재조대장경을 능가한다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및 속장(續藏)의 조조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어지는 재조대장경의 조조의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고종(高宗)18년(1231) 몽고군이 침입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도를 임시로 강화도에 옮기고 조조되기 시작한 재조대장경 또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현재 그 판목이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총 663함(函), 1562부(部) 6778권(卷)이며 그 종판(終板) 총수는 중북 121매를 합쳐 81258판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 판수에 대해서만은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분량으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가치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재 중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는 전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신판 디지털 대장경으로도 세계에 자랑할 만 하다.

이 같은 목판인쇄는 활자 인쇄술이 발명, 유통된 이후에도 한자권의 동양에서는 20C의 현대가 열리기 직전인 19C 말까지도 종이라는 미디어에 내용을 수록하는 중요한 기록 도구로 자리 잡고 있었다.

2.2 고려 말의 활자 인쇄

고려 말의 금속활자의 기원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그 이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으나 일단은 기록상으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1234년 이전의 『고금상정예문(古今詳定禮文)』의 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있으리라 본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종지와 목판인쇄술의 경우와는 달리 금속활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독창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다만 활자 또는 활자판의 개념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송대(宋代) 활자판의 발명은 그 구성 재료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언급할 필요는 있으리라 본다. 이 기록은 북송(北宋)의 심괄(沈括, 1030-1094)이 쓴 『몽계필담(夢溪筆談)』 내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종(仁宗) 경력년간(慶曆年間, 1041-1048) 필승(畢昇)에 의해 만들어진 교니활자(膠泥活字)에 관한 것⁴⁾이다. 그러나 주형으로 만들어진 활자도 아닌 데다가 그 재료가 흙으로서 내구성이 강하지 못하고 조판에 있어서도 활자를 고정시키기 위해 송진, 밀랍 등의 보조 물을 사용하는 등 결국 그 비실용성으로 인해 폐기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의 초창기 금속활자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각의 활자를 심어서 많은 부수를 인쇄한다는 첫 시도는 크게 가치 있는 일이며 그 과정상의 개념은 혹 고려 말의 금속활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지는 고려 말의 금속활자인쇄의 사용을 증명하는 기록 또는 증거는 『상정예문(詳定禮文)』의 예(例),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尚頌證道歌)』의 예, 그리고 『삼봉집(三奉集)』 및 『고려사(高麗史)』내의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문집인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후집(後集) 권1에 수록된 『신인상정예문(新印詳定禮文)』 발문(跋文)에 적힌 내용은 1234-1241년 사이 분명히 한반도 내에 주자인서가 행해졌음을 말해주는 최초의 기록이며 그 시발은 이미 이에 선행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추정케 하는 기록이다.

4) 沈括. 『夢溪筆談』 p.117 板印書籍

徐有集. 『林園十六志』. 第6卷 怡雲志 卷第7, 圖書藏訪下, 膠泥活字法

이상 千惠鳳. op. cit., pp.185-186에서 재인용.

발문에 보면 인종(仁宗, 1123-1146) 시 당시 평장사(平章事)직의 관리인 최윤의(崔允儀) 등 17명이 고금(古今)의 예의(禮儀)에 관해 편찬한 50편의 『상정예문(詳定禮文)』이 있었으나 해가 가면서 내용이 탈락되거나 글자가 결하게 되어 다시 2부를 만들어 한 부는 예관(禮官)에 또 한 부는 최이(崔怡)의 집에 소장하였는데, 몽고 침입 시 이중 예관에 둔 한 부는 미처 강화(江華)에 가져오지 못하고 최이 소장의 1부 만이 남게 되자 이것을 기본으로 주자(鑄字)로 28부를 인쇄하여 각 관아에 나누어 소장케 하였다는 것이 대강의 내용이다.

1234-1241 년이라는 년도는 강화천도와 최이의 사망사이의 연도이며 이보다 선행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몽고 침입을 당해 황당히 서둘러 강화에 천도한 후 기존의 기술로 인쇄했으리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될 수 있으나 주자인쇄 자체가 발명되었을 가능성은 회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사실을 발굴해 내고 연구해서 증거를 통해 단정 지어야 할 숙제로 남는 것이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권말(卷末)에 기록된 간기를 보면 현재 남아있는 이 책은 고종26년(1239) 기해년(己亥年) 공인(工人)들을 모집하여 주자본으로 된 같은 책을 그대로 다시 목판에 새긴(重雕)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239년 이전에 이미 주자로 인쇄된 증도가가 있었으며 이는 『상정예문』의 예와 더불어 13C 중엽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금속활자 인쇄의 발명시기로 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삼봉집(三奉集)』과 『고려사(高麗史)』 내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4C에 정도전(鄭道傳)이 서적포(書籍舖)에 주자(鑄字)를 두어 경사자집(經史子集)의 모든 도서를 인쇄할 것을 요망하였으며 공양왕(恭讓王) 4년(1392) 서적원(書籍院)을 두어 주자를 관장하고 서적을 인쇄하는데 그 관리로서 영(令)과 승(丞)을 두었다는 사실이며 기록상 기관의 명칭이 서적포, 서적점(書籍店), 서적원으로 다르게 호칭되고 있으나 요컨대 주자인서를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3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⁵⁾의 출현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호가 백운(白雲)이고, 법명이 경한(景閑, 1298~1374)인 백운화상에 의해 편저되었다.

백운은 1298년(충렬왕 24)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수행에 정진하던 중 1351년(충정왕 3, 54세) 5월에 원(元)의 석옥선사(石屋禪師)에게 불법을 구했으며 인도의 고승 지공화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우리나라로 돌아와 황해도 해주의 안국사와 신평사 등에서 주지를 지내고, 후진 양성에 힘쓰다 1374년(공민왕 23, 77세) 여주 취암사에서 입적(入寂)하였다.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은 석옥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불조직지심체요절』 1권을 전해 받고 불도를 닦아 1372년(공민왕 21), 75세 되던 해 스승에게서 받은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리고 일부분은 증보하여 재편집을 한 것이다. 즉, 석옥선사가 전해준 『불조직지심체요절』에 『선문염송(禪門念誦)』과 『치문경훈(緇門警訓)』 등에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예로부터 내려오는 7불(佛)과 인도 28조사(祖師), 중국 110선사 등 145가(家)의 법어에서 가려 뽑아 307편에 이르는 게(偈), 송(頌), 찬(讚), 가(歌), 명(銘), 서(書), 법어(法語), 문답(問答)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사로는 유일하게 신라 대령선사(大領禪師)가 하권에 수록되어 있다.

흔히 표지서명과 판심제의 『직지(直指)』라든가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 『직지심요』, 『직지』 등으로 요약되어 불리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체제는 활자본이나 목판본 모두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377년(우왕 3) 흥덕사(興德寺)에서 먼저 간행된 금속활자본은 현재 상권은 전하지 않고, 하권 1책(총 38장)만이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전하고 있다. 이듬해인 1378년 취암사(鷲巖寺)에서 간행된 목판본은 상·하권이 완전한 1책으

5) <http://www.jikjiworld.net>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éenne, Supplément』, (Paris: Ernest Leroux, 1901) n.3738

李姬載, 모리스 쿠랑 原著, 『韓國書誌, 修正翻譯版』, (서울: 一潮閣, 1994) n.3738

李世烈 역, 『直指』, (서울: 보경문화사, 1997)

註解直指, (충청북도흥덕사관리사무소 편, 1991)

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그리고 영광 불갑사(佛甲寺)에 소장되어 있어 금속활자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체제나 내용을 목판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제목에서 말하고 있듯이 본서의 중심 주제는 ‘직지심체’로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선종(禪宗)의 불도를 깨닫는 명구(名句)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선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볼 때,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활자본보다는 목판본이 선행하는 관례와 달리 활자본이 우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존 최고의 활자본이라는 가치를 떠나서라도 간행기록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볼 때 선행된 홍덕사본이 기본적인 저본(底本)임에는 틀림없다.

1377년에 청주목(淸州牧) 밖에 있는 홍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데 연화문인(緣化門人) 석찬(釋璨), 달잡(達湛), 시주(施主) 비구니 묘덕(妙德)의 간행 기록에서 석찬과 달잡은 모두 스승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퍼고자 묘덕의 시주를 받아 편집과 간행을 주도한 백운화상의 제자로서 특히 석찬은 『백운화상어록』 상 하권을 모아서 기록한 백운화상의 시자(侍者)였다.

목판본의 간행기록에는 글을 쓰고 조각한 장인들과 간행에 도움을 준 인물들이 나열된 바, 시주자로서 비구니 묘덕은 홍덕사 금속활자본과 취암사 목판본 직지 간행에 모두 시주 관여함으로써 활자본의 예로써 목판인쇄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2.4 활자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⁶⁾

본래 이것은 그 방대성과 유래 없는 본격적인 한국의 서지라는 점에서 동서양의 한국 학자에게 중요한 기본 자료로 남아있는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내에 수록됨으로서 그 존재가 드러

6) 상동

난 것인데 1972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도서의 해>를 맞아 파리의 국립도서관이 주로 귀중본을 위주로 한 도서전시회에 내놓음으로서 그 소재가 확인되었던 것이다.

『한국서지』의 보유판(supplément) 내에 3738번으로 수록되었고 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로 나와 있으며 설명은 매우 간단하여 다음과 같다.

“1책 대 8절판(하권만 존재), (C.P).

이 도서는 권말(卷末)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1377년 청주목(淸州牧)밖에 있는 흥덕사(興德寺)에서 주자(鑄字)로 인쇄되었다. 만일 이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면 주자, 즉 활자는 활자의 발명을 자랑으로 삼는 태종의 명령보다 86년이나 앞선 것이다.

그 밖에도 간기를 주목해야 한다; 1371년 소종(昭宗)에 의해 채택된 원(元)의 연호(年號)인 선광(宣光) 7년이라 적혀 있다”.

C.P란 꾸랑이 프랑스공사관 통역서기관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당시(1890. 5-1892. 3) 그의 상관이자 유일한 외교관 동료였던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를 말하는 것으로 당시 소장 가였다. 상, 하 권중 상권 없이 하권만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국립도서관까지 넘어가 1972년에 확인된 것도 역시 하권뿐이었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초대 주한 대리공사로 부임한 플랑시는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고서 및 각종 문화재를 수집한 후 퇴임 후 이 모든 것들을 프랑스로 가져갔는데 그 속에 『직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플랑시의 각종 컬렉션은 그 목록이 해당 분야에 널리 퍼질 정도로 양질 면에서 큰 평가를 받는 것이다.

『직지』에 실린 확실한 간기(刊記)에도 불구하고 1403년 태종(太宗)의 계미자(癸未字)를 활자의 발명시기로 잡은 꾸랑의 오류는 지적되어야 할 점이나 본서를 소개하여 소재확인에까지 이르게 한 『한국서지(韓國書誌)』의 의의 또한 크게 인정되어

야 할 것이다.

『직지』는 현재 청구기호 B.N Coréen 109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에 소장되어 있다. 그 수집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꾸량의 『한국서지』의 본편격인 1-3권(1884-1886 간행)에 수록되지 않고 1901년에 간행된 보유판에 게재된 것으로 보아 1886-1900년경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1911년 드루오 호텔에서 경매되었다. 당시 뽐랑시 소장본의 대부분은 모교인 동양어학교(Ecole des Langues Orientales)에 기증되었으나 직지는 앙리 베베르(Henri Vever, 1854 ~1943)에 의해 180프랑에 구입, 소장되었으며 1950년경에 그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되었다.

그러나 직지가 오늘날과 같은 각광을 받기까지 오랜 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한국서지』에 수록되어 알려진 『직지』는 그 실물과 내용이 확인되지 않다가 1972년 ‘세계 도서의 해(International Book Year)’를 기념하기 위한 ‘책 전시회’에 출품됨으로써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간행 장소인 청주 흥덕사도 1985년에 이르러서야 청주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됨으로써 오늘날의 청주 흥덕구 운천동 866번지임이 확인되었고 1992년 흥덕사 터의 정비와 함께 청주 고 인쇄박물관을 개관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인 받게 되었다.

첫째 장이 떨어져나가고 없는 하권에서 볼 수 있는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계선(界線)이 있다. 반엽(半葉)의 행자수(行字數)는 11행 18~20자, 주쌍행(註雙行)이다. 판심에는 어미는 없고, 판심제(版心題)는 『직지(直指)』, 권말제(卷末題)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선장본(線裝本)으로 다섯 구멍에 붉은 실로 꿰맨 5침안정법이며 크기는 24.6×17.0cm이다. 종이는 전통한지에 인쇄되었으며, 전체가 배접되어 있다. 표지는 능화판 문양과 종이로 보아 조선 후기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1377년이라는 연대와 함께 주조된 활자로 인쇄되었다고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국 인쇄본이다”라고 후에 첨부한 모리스 꾸량의 붙어 기록이 있다.

활자본으로서의 『직지』의 특징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미숙한 점이 눈에 띈

다. 즉,

- 행렬(行列)이 바르지 않고 글자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경우도 있다.
- 인출(印出)된 자면(字面)에서 나타나는 묵색(墨色)의 농도 차이가 심하고 반점(斑點)이 나타나있는 경우가 많다.
- 일(日)이나 일(一) 등의 글자에서 거꾸로 식자된 경우도 있으며, 어떤 글자는 탈락된 경우도 있다.
- 동일 면에서 동일한 활자의 글자 모양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의 상황은 조선조에 시작된 본격적인 금속활자 인쇄와 비교할 때 초창기의 기술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뒤에 논하기로 한다.

3.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

3.1 조선 초의 인쇄 문화 전반

본인의 일련의 논문에서 소개했듯이 조선조 초기, 특히 태종과 세종을 잇는 15C 전반부는 세계의 도서, 인쇄 및 매스 미디어의 역사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거론되는 시점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직지⁷⁾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15C 이전의 한국의 금속 활자본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구미학계의 현실이다. 우리 학계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그 정체성을 찾아나가야 하겠으나 매스 미디어의 정보혁명으로 간주되는 활자의 발명이 대량 보급화에 기본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1403년의 계미자가 구텐베르크 활자와 상호 비교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덴 (Audin)을 비롯한 학자들의 견해는 본인의 논문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다⁷⁾.

7) 이희재, 「조선 전기 인쇄 기술의 발달」, 『한국고활자 학술회의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pp.89-111.
_____, 「東西洋 初期活字印刷方法 에 관한 比較研究」, 『國會圖書館報』 22: 4(1985, 7-8), pp.5-16.

조선 건국 초, 대체로 태조-태종-세종을 잇는 14C말 15C 전반부는 새로운 왕조로서 여러 측면에서 국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인 시기로 한반도의 인쇄문화가 확실한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된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인쇄문화를 다루는데 가장 먼저 큰 비중으로 거론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본격적인 금속활자 인쇄의 출현과 발전이다. 구미 학계에서 첫 금속활자로 간주하는 태종년간의 계미자(癸未字), 그리고 그 종류와 기술의 발전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종년간의 일련의 활자들에 대한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 왕조인 고려의 인쇄 문화에 그 단단한 뿌리를 박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와 동양에서의 '복제' 개념으로서의 목판인쇄는 서양에 비해 무려 8-9세기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의 활자는 서양보다 빨리 탄생할 수 있었다. 기술이나 실용성의 가시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적인 문화의 틀에서 본다면 목판인쇄의 출현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초기 활자의 사용까지는 하나의 틀에 묶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 같은 관점에서, 특히 초창기 활자 인쇄 문화를 다룸에 있어서 오히려 목판 인쇄에 대한 강조를 동시에 하는 바이다.

조선 초의 인쇄문화는 태조에서부터 시작된다⁸⁾. 태조 원년 7월 문무백관의 제도를 제정하면서 고려 말의 서적점(書籍店), 서적포(書籍鋪), 서적원(書籍院)에서 유래된 명칭을 그대로 답습한 서적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書籍院掌經書籍印出事 令一從七品 丞二從八品 錄事二從九品 司吏二

조선조의 서적원은 경적(經籍)을 인쇄하는 일을 맡았는데 직제로서는 령(令) 1

_____,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 『世宗年間의 印書事業에 관한 綜合的 考察』(서울 正音文化社, 1985) pp.181-208.

_____, 『朝鮮建國初 印書文化의 意義』, 『圖書館學』 13輯(1986), pp.121-142.

8) 『太祖實錄』. 卷 1, 45(張數) r.(=recto, 전면)-49 v. (verso, 후면) 이희재, 『조선 전기 인쇄기술의 발달』, pp.77-78.

명 종(從)7품(品), 승(丞) 2명 중8품, 녹사(錄事) 2명 중9품, 사리(司吏) 2명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교서관(校書監, 태종1년 7월 校書館으로 개칭)으로서는 도서관 문서 등의 제반업무를 살피게 하여 즉위 초부터 조선조 도서관화·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전 왕조인 고려의 영향은 승유억불(崇儒抑佛)의 건국이념에도 불구하고 『인천안목(人天眼目)』, 『주심부(註心賦)』 등의 불경을 목판으로 찍어내고 강화도(江華島) 선원사(禪源寺)로부터 대장경 목판을 옮기는⁹⁾ 등 불교 경전 문화로 이어졌으며 조준(趙浚)등에게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하도록 명하여 태조 4년 완성시킨 것을 비롯하여¹⁰⁾ 2년 정도전(鄭道傳)의 『사시수수도(四時蒐狩圖)』¹¹⁾, 3년 권중화(權仲和) 등의 『지리비록촬요(地理秘錄撮要)』¹²⁾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傳)』¹³⁾, 4년 정도전의 『경제문감(經濟文鑑)』¹⁴⁾, 정혼(鄭渾) 등의 『정관정요(貞觀政要)』 교정 찬진¹⁵⁾, 7년 조용(趙庸) 등의 『사서절요(四書切要)』¹⁶⁾ 등 수종의 도서들을 목판으로 찍어냈다.

또한 태조 4년 서적원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백여본을 백주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든 목활자(木活字)로서 찍어냈고¹⁷⁾ 같은 해 정진(鄭津)에게 수여한 『개국원종공신록권(開國原從功臣錄卷)』을 목판본으로 간행했으며 역시 6년 10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목활자로 찍은 『개국원종공신록권』을 내리고 있다¹⁸⁾. 같은 해 『경제육전(經濟六典)』¹⁹⁾과 권근(權近)의 『입학도설(入學圖說)』 등도 간행되었다. 목판은 많은 부수(部數)를

9) ibid, 卷 14, 2 r.

10) ibid, 卷 7, 2 v.

11) ibid, 卷 4, 6 v.

12) ibid, 卷 5, 5 v.

13) ibid, 卷 5, 21 r.

14) ibid, 卷 7, 13 v.

15) ibid, 卷 8, 5 r.

16) ibid, 卷 15, 11 r.

17) 『대명률직해』, 金祗 跋.

18) 해당 녹권 자체

19) 『太祖實錄』, 卷 12, 12 r.

위해 목활자는 적은 부수를 간편히 찍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면서 이러한 인쇄문화의 활동이 계속 이루어진 점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목활자를 동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금속활자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 이외에도 고려말 조선초의 다양하고 왕성한 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태종의 인쇄사업²⁰⁾은 절대적으로 계미자(癸未字) 및 계미자로 찍은 책의 출현으로 대표될 수 있다. 세계 인쇄의 역사에서 구텐베르크와 비교되는 획기적인 이 사실은, 그러나 역시 여말 선초의 인쇄문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중요한 큰 '사건'이었을 뿐이라고 얘기되어질 수도 있다. 그만큼 당대 우리의 인쇄문화는 개념상, 여건상 상당 수준 형성되어 있었다.

주자소의 활자 인쇄로 태종년간 중앙에서의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지방에서의 활자 인쇄본의 출현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다만 목판으로서의 간행되었거나 중간(重刊)된 것들을 연대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태종 2년(1402) 7월, 강릉에서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간행, 동 3년 8월 평양부(平壤府)에서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150부를 인쇄하여 각사에 반사, 진산(晉山)에서 『춘추제전회통(春秋諸傳會通)』 중간, 동 5년 3월 전라도 두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寺)에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간행, 동 11년 6월 고창현(高敞縣) 문수사(文殊寺)에서 『행원품(行願品)』, 『금강반야(金剛般若)』, 『천노해반야(川老解般若)』, 『심경대전해(心經大顚解)』, 『공선(空禪)』, 『대전화상주심부(大顚和尚注心經)』, 『마하반야바라밀다경(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등이 중간, 동 13년 3월 해인사에서 대장경을 인쇄하여 개경사(開慶寺)에 장치, 동 15년 5월 안엄사(安嚴寺)에서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간행, 동 17년 5월 경주부(慶州府)에서 『제왕운기(帝王韻紀)』 간행, 의흥현(義興縣)에서 『향약구급방(香藥救急方)』 중간, 동 18년 3월 제주목(濟州牧)에서 『예기천전록(禮記淺見錄)』 복각(覆刻), 5월 홍주(洪州)에서 의옥집(疑獄集) 간행 등을 말할 수 있다.²²⁾ 또 지

20) 주 7)과 동일.

21) 기초자료로서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p.10-12를 참조했음.

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본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태종 8년 11월의 『화엄경(華嚴經)』 간행, 동 16년 2월의 『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중간과 중앙본으로 보여지는 판각된 『양잠방(養蠶方)』²³⁾이 있다.

이밖에도 세종년간의 도서관화로서 전조(前朝)의 역사를 비롯한 많은 도서의 찬진이라든가 중국 및 일본과의 교류관계 등의 기록이 있어 직접적인 인쇄의 기록은 아니나 당시의 도서 및 인쇄문화를 충분히 가늠 짓게 하고 있다.

세종은 그의 재위 32년간(1418-1450)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걸쳐 우레 없는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왕립학술연구소(Royal academy)로서 신설된 집현전(集賢殿)은 동시대 학술과 제반 문화의 요람으로서 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인 한글의 제정, 각 분야의 학술 연구와 토론, 국방에 대한 학문상의 고문, 각종 저술과 서적의 편찬 등 그 역할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집현전의 학자와 과학자들은 각종 천문기구와 병기제조, 그리고 금속활자의 기술 혁신 등 문물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동시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문화국가를 형성했다. 이 모든 업적 중에서도 금속활자의 주조와 인쇄사업은 문화사적 측면에서 가장 의의를 갖는 것으로서 양질 면에서 정상의 수준에 이르러 당대는 물론 조선조 5백년의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활자 인쇄에 힘을 기울인 세종년간에도 사서·오경(四書五經) 및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을 비롯한 목판본은 계속 출현하였다. 사서·오경 및 『성리대전(性理大全)』 229권은 명의 영락년간(永樂年間)에 한, 당, 송이래 제유(諸儒)의 증설을 종합 편찬한 것으로서 세종 원년 12월 경영군 배(敬寧君 裴)가 명으로부터 특사한 것을 가지고 돌아온 이래²⁴⁾ 경의 각지에 보급되었다. 이후 세종 3년의 “함길도 관찰사가 도내 서적이 너무 적어 사서오경을 반사하여 학도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니 이에 따랐다(威吉道觀察使啓 道內書籍鮮少 學者未得講習 乞賜

22) 이상의 도서 중 태종 3년의 朱文公家禮와 同 13년의 大藏經은 각각 太宗實錄 卷 6, 9 v.와 卷 25, 27 r에 기록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同書의 跋文이나 刊記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23) 前者 2種은 各書跋 後者는 『太宗實錄』 卷33, 41r에 기재되어 있다.

24) 『世宗實錄』, 卷 6, 10 r.

四書五經 以觀學徒 從之)”²⁵⁾ 기록을 필두로 5년 “예조에서 이르기를 각도에서 오 경사서 각 10부씩 인쇄해 올려 오부학당에 나누어 주라하니 이에 따랐다(禮曹啓 各道印送五經四書各十部 分給成均館五部學堂 從之)”²⁶⁾는 등 비슷한 기록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는 종래부터 각도 각관에 가졌던 경서의 각 판들을 그대로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 8년 11월 명에 청하여 사절 김시우(金時遇)편에 사서오경 및 『성리대전』이 이차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²⁷⁾ 이미 그 전년인 7년 10월 “『성리대전』과 오 경사서를 인쇄하고자 하니 그 책지의 가격을 저지로 환산하여 충청도 3천첩, 전라도 천첩, 경상도 6천첩을 만들어 진상토록 하라는 내용을 충청, 전라, 경상도 감사에게 전했다(傳指忠淸全羅慶尙道監司 欲印性理大全·五經四書 其冊紙給價換楮 忠淸道三千貼 全羅道四千貼 慶尙道六千貼 造作以進)”²⁸⁾는 내용을 시작으로 동 8년부터 동 11년까지 이들이 새로이 간행되는 발판을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세종 9년 간행한 사서오경 및 성리대전의 변계량(卞季良) 발에도 “사서오 경 및 『성리대전』의 총 229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경상감사 최부(崔府), 전라감사 심도원(沈道源), 강원감사 조종생(趙從生)에게 명하여 그 도에서 침재(鋟梓)하게 하였다”²⁹⁾고 적혀 있다.

모든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총 인본 229권 중 『사서대전(四書大全)』은 강원도에서 『성리대전』과 『역·서대전(易·書大全)』 및 『춘추대전(春秋大全)』은 경상도에서, 『시대전(詩大全)』 및 『예기·춘추대전(禮記·春秋大全)』은 전라도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본서의 각판들은 각도로부터 중앙의 주자소에 이관되었다

慶尙道監司進 新刊易·書·春秋板子命下鑄字所³⁰⁾, 全羅道監司進 新刊詩·禮

25) ibid. 卷 13, 16 v.

26) ibid. 卷 19, 25 r.

27) ibid., 卷 34, 10 v.

28) ibid., 卷 30, 4 r.

29) 『東文選』, 卷 103, 跋 卞季良

30) 『世宗實錄』, 卷 43, 20 v.-21 r.

板子 命下鑄字所³¹⁾.

또한 지방 각 관아의 향교 및 궁촌벽지에는 소장된 것이 없다 하여 각 도 감사(監司)에 명하여 본서를 각 도 각 관아의 향교에 인쇄, 비치하게 하고 읍인(邑人) 역시 자비로 비치코자 원하는 자는 용지를 거두어 주자소의 소장관으로 인출하게 하였던 것이다.³²⁾

이와 같이 세종은 당시 경전으로서 필독해야 할 사서오경 및 『성리대전』의 보급과 이용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목판인쇄술이 더욱 진일보하는 발전상을 보였다. 다만 부언할 것은 고려조 목판본의 대종을 이루던 불경의 개관이 조선조 억불책에 의해 세종년간 우리나라 전역을 통해 겨우 13여종에 그쳤다³³⁾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종조의 주자소는 활자의 주조와 함께 이와 같은 목판본 서책의 간행 배포의 직을 맡았으니 집현전을 정신적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주자소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표출매체이자 문화 육성의 근간이었다 할 것이다.

3.2 조선 초기 활자 인쇄³⁴⁾

태조의 목활자의 사용은 일단 배제하고 조선 초기 활자 인쇄라면 절대적으로 태종조의 계미자(癸未字) 및 계미자본의 출현으로 대표된다.

태종 3년 2월 우리나라의 도서가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음에 주자소를 새로 설치하고 인쇄사업에 들어갔다는 『태종실록』의 기록에 덧붙여 권근(權近)의 『주자발(鑄字跋)』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를 엿보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원문까지 서술하기로 한다.

31) ibid., 卷 43, 22 v.

32) Loc. cit.

33)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pp.247-272.

34) 이희재, 『조선 전기 금속활자 인쇄기술의 발달』 pp.79-80.

永樂 元年 春三月. 殿下謂左右一吾東方在海外, 中國之書, 罕至, 板刻之本, 易以剋缺, 且難盡刊 天下之書也, 予欲範銅爲字, 隨所得書, 必就而印之, 以廣其傳一於是悉出內學 命判司平府事臣李稷, 驪城君閔無疾一校書著作郎臣朴允英掌之, 又出經筵古注詩, 書, 左氏傳, 以字本, 自其月十有九日而始鑄 數月之間 多至數十萬字 恭性我殿下一萬機之暇 留神經史一爲鑄是字 以印群書 可至於萬卷 可傳於萬世一是年後十一月初吉 推忠翊載佐命功臣一寶文閣大提學 知經筵春秋成均館事吉昌君臣權近拜手稽首敬跋³⁵⁾

즉, 우리나라의 서적이 적어 유생들이 널리 읽을 수 없고, 동쪽 바다 건너에 있는 이유로 중국의 도서가 들어오기도 힘들 뿐 아니라, 글씨를 새긴 목판은 일그러지고 결손 되기가 쉬워 천하의 도서를 모두 찍을 수 없어서 이를 염려하여 태종은 재위 3년 계미(癸未, 永樂元年, 1403) 2월 동활자(銅活字)를 만들어 책을 인쇄하고 이를 널리 전하고자 하였으니 예문관(藝文館) 대제학(大提學) 이직(李稷), 총제(摠制) 민무질(閔無疾),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 우대언(右代言) 이응(李應) 등을 제조(提調)로 하여 그 비용은 조정과 대소신료들로 하여금 동철(銅鐵)을 자진 상납케 하는 것으로 충당하고 경연소장의 『시(詩)』, 『서(書)』, 『좌씨전(左氏傳)』을 활자의 기본 글씨(字本)로 하여 그달 19일부터 주조하기 시작하여 수개월 사이에 수십만 자에 이르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십만 자는 당시의 정황에 미루어 다소 의문이 제기되어지나 적어도 10만여 자는 되었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활자의 크기는 대(大) 1.4×1.7cm, 소(小) 1.2×0.8cm 인데 정교함 면에서 그 질은 떨어진다.

주자소에서의 활자주조이후 지방을 제외하고 인쇄된 기록들에 따르면 『경제육전(經濟六典, 1404년)』과 그 후집에 해당되는 도서들(1413)³⁶⁾, 『십일가주손자(十

35) 『太宗實錄』, 卷 5, 7 r.

『陽村集』, 卷 22, 權近 鑄字跋.

36) 『太宗實錄』, 卷 23, 25 r. - v.

ibid. 卷 25, 10 r.

一家註孫子, 1409)』³⁷⁾, 『십칠사(十七史, 1412)』³⁸⁾, 『대학연의(大學衍義, 1412)』³⁹⁾, 『대명분류율(大明分類律, 1415)』⁴⁰⁾, 『침구동인도(鍼灸銅人圖, 1411)』⁴¹⁾, 『승선직지록(乘船直指錄, 1416)』⁴²⁾, 『동국약운(東國略韻, 1416)』⁴³⁾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말한 도서 중 주자소에서의 발행이 확실하여 재미자로 찍어낸 책임이 명확한 것은 태종 12년의 『십칠사』 및 『대학연의』와 동 13년의 『원육전』, 『속육전』, 그리고 16년의 『승선직지록』 뿐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지 간행 또는 인출했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태종 3년 2월 주자소를 설치하여 수개월 후 재미자가 출현한 이래 태종 12년의 『십칠사』 이전까지 재미자로 찍은 책이 전무할리는 만무하므로 일단 실록에서의 인출 또는 간(刊, 刊行)이라는 표현은 재미자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상은 중앙의 재미자본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것이며 지방에서의 활자 인쇄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중앙 지방을 막론하고 목판으로서는 수많은 책들이 간행되었다.

세종조 활자의 주조는 동 2년 경자자(庚子字, 1420)로부터 시작된다⁴⁴⁾. 경자자는 이전에 주조된 재미자(癸未字)의 질이 좋지 못하여 인쇄 할 때 활자를 배열시키는 밑판인 동판(銅板)에 황랍(黃蠟)을 녹여 그 위에 활자를 심어 인쇄를 하게 되는데 납(蠟)의 소비가 많을 뿐 아니라 인출량도 일일 몇 장에 불과하여 경자년(1420) 겨울 11월부터 7개월간 임금이 친히 지위하여 공조참판(工曹參判) 이천(李蕝)과 전소윤(前小尹) 남급(南汲)에 명하여 글자의 모양을 고쳐 개량하게 하니 사방이 바르게 되어 납을 녹이지 않고도 인출량이 일일 20여지에 이르게 되었다.

모양이 크고 가지런하지 못하고 조판 시 불편한 재미자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주조된 경자자(庚子字) 역시 자본은 재미자와 동일한데 크기는 대 1.1×1.3cm, 소

37) 千惠鳳, 「癸未字와 그 刊本」, 『書誌學』, 제6집(1974), p.21, 27.

38) 『太宗實錄』, 卷 24, 1 v.

39) ibid. 卷 24, 17 r.

40) ibid. 卷 29, 25 v.

41) ibid., 卷30, 40 v.

42) ibid. 卷 31, 25 v.

43) ibid. 卷 31, 30 r.

44) 『世宗實錄』, 卷 11, 15 v, 卷 18, 10 v.

1.1×0.6cm로 작아지고 보다 정교해졌다.

이렇게 개량된 경자자도 말단이 추(錐)와 같이 뾰족하고 글자체가 조밀하여 다시 세종 16년(1434) 7월부터 9월에 걸쳐 동철(銅鐵)이나 기능공(工匠)등의 수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여 만에 달하는 동활자인 갑인자(甲寅字)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⁴⁵⁾.

인쇄기술의 혁신을 위한 세종의 끊임없는 연구로 세종 16년인 1434년에 20여 만자가 주조된 갑인자(甲寅字)는 한국의 고 인쇄사상 정점에 이르는 가장 우수한 활자로 전 왕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주(再鑄), 개주(改鑄), 보주(補鑄)됨으로써 조선조 활자의 근간을 이루었다. 경자자 때와 마찬가지로 이천(李蕝)으로서 그 업무를 감독케 하고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김돈(金墩), 직전(直殿) 김빈(金賓), 호군(護軍) 장영실(蔣英實), 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이세형(李世衡), 사인(舍人) 정척(鄭陟), 주부(注簿) 이순지(李純之)등에게 업무를 관장케 하였다. 경자자에 비해 큰 자형(대 1.4×1.6cm, 소 1.4×0.8cm)으로 경연 소장의 『효순사실(孝順事實)』 『위선음졸(爲善陰鷲)』, 『논어(論語)』 등에 나오는 글자를 자본으로 삼고 부족한 것은 후에 세조(世祖)가 되는 진양대군(晉陽大君)의 서체로 메꾸었다. 일명 위부인자(衛夫人字)로 불리우는 이 활자는 그 자체가 우아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활자도 반듯하여 활자를 옮겨 배열하는 조판과 인쇄능력에도 큰 향상을 가져왔다.

갑인자의 구조에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1446년 한글의 반포 이후 1447-1449년 사이 갑인자 병용 한글 활자를 주조한 것이다. 서체는 갑인자체라고 보기에는 각이 반듯하고 뚜렷해서 오히려 오늘날의 현대감각적인 고딕, 또는 그레픽체에 가깝다고 하겠다.

세종은 이후에도 『자치통감강목훈의(資治通鑑綱目訓義)』를 위한 대(大) 연활자(鉛活字)인 병진자(丙辰字)와 목활자인 동국정운자(東國正韻字)를 연이어 주조하도록 했다.

『자치통감강목훈의(資治通鑑綱目訓義)』 대자(大字)는 세종 18년 7월 집현전부

45) *ibid.*, 卷 65, 3 v.

金鑄, 『大學衍義』 甲寅字 鑄字跋

교리(集賢殿副校理) 이계전(李季甸), 김문(金汶)이 세종의 명에 따라 3차례 수교를 거쳐 완성된 것인데, 그 이전의 것은 모양이 조밀하므로 왕의 나이가 높아지면 관람이 어려울까 염려하여 진양대군 유(晉陽大君 櫟)로 하여금 대자로 주조하게 하여 신자(新字)로는 강(綱)을, 구자(舊字)로는 목(目)을 구성하게 하였으며, 또 책의 권수가 많고 무거워 혹은 줄여서 상중하 3책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상하 2책으로 하기도 하여 합계 149권 이었다⁴⁶⁾. 이 2.3×3.4cm의 대자는 세종 18년 병진(丙辰)의 년호에 따라 병진자라 하는데 강목훈의(綱目訓義)의 강자(綱字)에만 사용되었을 뿐 다른 인본은 찾아볼 수 없다.

1.8×2.0cm의 목활자인 동국정운자의 경우는 실록이나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국보 142호로 지정되어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전질1-6 책과 국보 71호로 지정되어 간송문고(澗松文庫)에 소장된 1,6책 영본(零本)에서 그 흔적을 보이고 있다. 세종 29년에 편찬이 완성되어 동 30년에 간행 분포된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서문 및 본문의 세주(細註) 인출에 갑인자, 본문의 국문 인출에 한글 주자, 그리고 한문 문자 인출에 목활자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활자의 주조는 많은 문헌의 간행으로 이어졌다.

경자자의 주조와 더불어 간행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비롯한 수십여 종, 갑인자의 주조 직후에 인출된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비롯한 수십여 종, 그리고 병진자(丙辰字)로서 찍은 『자치통감강목훈의(資治通鑑綱目訓義)』, 목활자로 대자를 찍은 『동국정운(東國正韻)』 등 15세기 전반부 당시로서는 많은 종류의 도서가 출현했다. 이외에도 29년 10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550본을 문신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그 인쇄부수의 면에서도 상당한 양의 책들이 출판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⁴⁷⁾.

세종이후에도 조선조의 인쇄문화는 꾸준히 이어졌으며 특히 세조-성종 조, 영조-정조 조의 활동은 매우 활발한 것이었으나 기술적으로나 발행회수 또는 발행부수

46) 『世宗實錄』, 卷 74, 10 r. - v.

47) 기록과 실물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고 나머지 문헌에 대해서는

이희재, 『조선 전기 금속 활자...』, pp.83-84와 金斗鍾 op. cit., pp.146-149를 참조할 것.

의 면에서 세종년간에 올라간 정점에서 더 큰 발전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4. 고려 말 조선 초 인쇄 문화의 의의

4.1 기술적 측면

인쇄과정은 크게 활자의 주조, 조판 또는 식자, 그리고 인쇄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기본적 원리, 즉 방법에 있어서는 동서고금이 다를 바 없고 다만 구체적인 도구로써의 물질과 형태의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초기 활자 인쇄 방법에 관한 전통적인 기록은 성현(成俔)의 『慵齋叢話(慵齋叢話, 1470)』⁴⁸⁾와 『東國厚生新錄(東國厚生新錄)』⁴⁹⁾에 수록된 것이 전부이다. 서양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이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현대적인 해석은 본인의 논문에서 수록되었으며⁵⁰⁾ 근래에 이르러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오국진 선생의 각종 초기 활자의 재현물이 소장되었다.

고 기록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활자의 鑄造는

大抵鑄字之法 先月黃楊木刻諸字 以海 蒲軟泥 平鋪印板 印着木刻字於泥中 則所印處 凸而成字 於是合兩印板 鎔銅從一穴瀉下 流液分入凹處一一成字 遂刻剔重複而整之 刻木者曰刻字 鑄成者曰鑄匠

48) 成俔, 『慵齋叢話』, 活字條

49) 『東國厚生新錄』, 抄本, 鑄字條

50) 李姬載, 「東西洋 初期活字印刷方法에 관한 比較研究」, 『國會圖書館報』 22; 4(1985, 7-8), pp.5-16를 참조할 것.

즉, 황양목에 여러 글자를 새겨 각인기(보기자)를 만든다.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역시 양각으로 거꾸로 새긴다. 해포의 연한 진흙을 인판에 편편히 편후 목각자를 진흙에 눌러 붙이면 글자가 박힌 곳은 오목하게 들어가 글자모양이 생긴다. 즉 양각으로 바로 된 자모(어미자)이다. 그리고 나서 양 인판을 합하여 한 구멍으로 용해된 동을 부어 넣으면 그것이 오목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글자를 이루게 된다. 마침내 중복된 것을 깎아내어 정돈한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사람을 각자라 하고 주조하여 이루는 자는 주장이라고 한다.

활자의 합금에 대한 고 기록은 없고 가장 오래된 합금 분석은 1455년의 을해자(乙亥字)로서 동 79.45%, 아연 2.3%, 주석 13.29%, 연 1.66%, 철 1.88%로서 우리나라 초기 활자의 합금성분을 엿볼 수 있다. 이후에도 합금의 비율은 꾸준히 바뀌었는데 주조의 유동성을 좋게 하고 선명한 자체의 적당한 경도(硬度)를 갖는데 가장 알맞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교적 무난한 합금의 비율은 동80%, 주석·연·아연 20%를 기준으로 각각 5% 내외가 가감된 청동합금이라고 한다.⁵¹⁾

『동국후생신록』에서는 철주자를 소개하고 있다.⁵²⁾

鐵鑄取陶土 精細治之 填鋪木板上 而板四邊皆有匡郭 填鋪既均平 曝之日中 待其半乾 取薄紙楮 楷書大小隨意 鎔蠟塗之 覆着板上 令刻手爲 陰刻其訖 始鎔鐵取汁用 杓灌之板上 務令平鋪候冷凝合脫下板上 則是爲鐵鑄字 每字剪出 用鐵刷子磨治箇箇精潔

즉, 철주는 도토를 정밀하게 손질하여 목판 위에 메워 펼치는데 판의 사변은 모두 광곽이 있어 균평하게 메워지면 이를 햇볕에 쬔어 반쯤 마르기를 기다린다. 얇

51) 金相運, 「韓國靑銅活字 印刷術發展의 技術史的 背景」, 『誠信女子師範大學 研究論文集』 第3輯 (1970. 11), p.54.

52) 『東國厚生新錄』, 抄本, 鑄字條, 鐵鑄

은 저지를 취해 대소임의대로 해서하고 납을 녹여 이를 발라 판상에 덮어 붙이고 각수에게 음각하도록 명한다. 이를 마치면 철을 녹이기 시작하여 그 즈음 국자를 사용하여 판상에 흘려 넣고 평평히 펴기에 힘써 냉각, 응고되기 기다리면 모두 판상에서 떨어지니 이것이 철주자이다. 매 글자를 극자 가지런히 빼어 철쇄자를 사용하여 가다듬으면 개개가 정결해진다.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표현이 지나치게 간략화된 것이 아니라면 전자에 비해 평면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양 인판이 합쳐지고 한 구멍으로 주물을 부어넣는 것과 달리 판상에서 주물을 흘려 넣고 평평히 편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밑에 요약한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재현된 *직지*의 인쇄과정⁵³⁾과 같은 내용의 간략한 표현일 수도 있다. 즉,

- 글자본을 선정한 후 결정된 자본의 종류에 따라 어미자의 제작에 필요한 두께와 크기의 날개 혹은 연속된 판형틀을 만든다.
- 녹인 밀랍(蜜蠟)을 판형틀에 붓고 응고시켜 밀납판형(蜜蠟版型)을 만들고, 그 위에 결정된 자본을 뒤집어 붙인 후 자본에 따라 조각칼로 양각으로 새긴다. 연속된 밀납판형인 경우에는 일정한 크기로 하나씩 날개로 잘라내어 완성한다.
- 쇳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흠이 있는 밀랍봉을 사용하여 가지를 만들고 완성된 밀랍 어미자를 한 자씩 날날이 붙여 어미자 가지를 만든다.
- 평평한 목판이나 철판 위에 거꾸집을 장치한 후 밀랍으로 만든 어미자가지를 넣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물토를 채워 넣는다.
- 어미자가지가 들어있는 주형이 굳으면 주형에 열을 가하여 밀랍으로 된 어미자가지를 완전히 녹여 낸 후 주형의 입구로 녹인 쇳물을 부으면 쇳물은 입구에서 흠을 따라 흘러 들어간다.
- 주형에 부은 쇳물이 식으면 활자 가지쇠를 들어내고, 쇳톱 등을 사용하여 활자 가지쇠에 달린 활자를 하나씩 떼어낸 후 줄로 깎고 다듬어 활자를 완성한다.
- 조판은 광곽과 계선이 고정된 두 개의 인판 틀을 번갈아 사용하여 인쇄할 책

53) <http://www.jikjiworld.net>

의 내용에 따라 식자하는데 먼저 밀랍을 계선 사이에 깔고 열을 가하여 녹인 후 활자를 배열하고 인쇄하기 쉽도록 수평을 잡는다.

- 인쇄를 위해서는 금속에 잘 묻는 유연묵을 사용 하여 활자 면에 먹물을 칠하고 그 위에 한지를 놓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솔을 사용하여 골고루 문질러 초벌인쇄를 한다. 인쇄물을 교정을 본 후 수정하여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한다.

어쨌든 이들은 밀랍을 어미자(matrix)로 사용한 것인데 서양의 소위 '밀랍에 의한 주조'와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인다. 밀랍에 의한 주조 방식은 석고 등으로 된 조각물(彫刻物) 형태의 모형에 밀랍을 덮어 발라 썬 후 역시 조각의 형태와 같은 모양의 주형에 끼운다. 이 때 밀랍이 발릴 모형은 조각의 원형태보다 약간 작게 하여 밀랍을 바름으로서 주형에 꼭 맞게 끼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간격은 밀랍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곳에 주물을 부어넣으면 밀랍은 녹아 없어지면서 그곳으로 주물이 스며들어가 형체를 이루게 되는 원리다. 아울러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같은 주조에 사용된 주물은 바로 청동 또는 황동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조각을 도토(陶土)에 대입시키고 나머지 밀랍이나 주물은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동국후생실록』과 이 방법 두 가지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은 서양에서 조각을 주조하는데 19C까지 사용되었다고 한다.⁵⁴⁾

서양의 밀랍의 의한 주조 외에도 형사(型砂)에 전후 양면으로 각인한 후 그곳으로 주물을 부어넣는 방법으로 조각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적용되었던 형사에 의한 주조' 또한 우리의 주조법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이어서 『용제총화』에서 말하는 조판 및 인쇄 과정은

遂分諸字 貯於藏櫝 其守字者曰守藏 年少公如爲之 其書草唱准者曰唱准 皆解文者爲之守藏列字於書草上 移之於板曰上板用竹木破紙填充而堅緻之 使不搖動

54) M. Laudais, 『Histoire generale des techniques』(Paris: P.U.F., 1965), pp.630-631.

者曰均字匠 受而印之者曰印出匠

즉, 주조된 활자는 활자케이스인 궤에 저장되어 수장에 의해 지켜지며 창준은 원고를 읽어 대조하고 수장은 불린 글자를 서초위에 벌려 놓는다. 조판 이전에 거치는 이 과정은 한꺼번에 10~30만자씩 주조되는 표의 문자 권에서의 활자의 방대한 양이라든가 그에 따른 올바른 사용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구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문선작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음은 상판이라 하여 글자를 판에 옮기는 식자과정인데 이 때 활자의 동요를 막기 위해 대나무나 파지 등으로 빈 곳을 채우거나 굳게 하였고 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을 균자장이라고 부른다. 이를 받아 인쇄를 하는 사람을 인쇄장이라고 한다.

이상의 『용제총화』의 언급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보충설명을 하면,

조판시의 판 틀은 광곽과 계선이 처음부터 고정된 것과 판을 짜면서 세우는 비고정의 두 종류가 있으며 광곽의 사변 또는 쌍 변으로 하거나 상하와 좌우를 서로 엇갈리게 1줄 또는 2줄로 나누어 변화시키기도 한다. 행과 행 사이를 나누는 계선은 두드러지게 하여 선을 나타내거나 또는 활자높이보다 낮게 하여 찍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자를 유계, 후자를 무계라 한다. 이 보다 이전에는 판에 납을 녹여 붙이고 활자를 꽃아 심었던 것으로, 그러기 위하여 계미자나 경자자의 끝이 추형이었음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판 틀의 한 가운데의 판심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어미(魚尾), 판심제(版心題) 등 각종 사항들은 간기가 나타나지 않은 문헌의 경우 년대 측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이 판 틀은 2쪽을 한 장으로 조판하게 되어 있어 인쇄 후 판심 부분을 접으면 전후 양면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결정적인 인쇄에 앞서 한 장 인쇄하여 교정을 보는 것은 동서고금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조선조에서는 감교관(監校官), 감인관(監印官)이라는 관직에 의해 행해졌다. 교정이 끝나면 판의 활자 면에 말총으로 만든 먹 솔로서 먹칠하고 그 위에 종이를 얹은 후 인쇄장은 다른 말총솔로 종이를 아래위로 문질러 밀어낸다. 이 같은 인쇄방법은 거의 변동 없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일일 인쇄량은 계미자의

수지⁵⁵⁾로부터 경자자의 20여지⁵⁶⁾ 그리고 갑인자의 40여지⁵⁷⁾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쇄방법의 기술적 혁신이라기보다는 활자의 개량에 따른 조판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초창기 활자 인쇄의 기술은 소위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와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앞서서 ‘복제’와 ‘주형(type mold)’의 개념을 형성하고 기술을 실현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시대를 거듭하면서 서양에서의 문헌의 대량보급과 과학의 발전에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중세 말 근세 초라는 동 시대 만을 국한시켜 볼 때, 각인기(puncheon)와 자모(matrix), 주형을 이용한 활자의 주조, 조판, 인쇄의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기술은 자양(字樣)과 합금재료의 차이가 있었을 뿐 별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4.2 문화사적 측면

세계 문화사에 있어서 15C 활자 인쇄의 발명은 천여 년의 중세를 마감하고 근세를 여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와 이어지는 종교개혁, 계몽주의, 산업화, 정보화의 시대의 건인차 역할을 했다. 활자의 발명은 언어 획득, 문자의 사용에 이어 제B의 정보 혁명을 가져와 인류사상 처음으로 메스 커뮤니케이션혁명을 일으킴으로써 과학과 정보, 나아가 문화의 대중화와 다중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인데 그 가치에 대해 이미 윌버 슈렘을 비롯한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과학을 선도한 금세기 학자들은 4차 정보혁명으로서의 컴퓨터의 발명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 말하자면 20C 후반의 정보혁명은 3차의 메스 커뮤니케이션의 종류와 형식, 수혜 대상 층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화시키는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다.

55) 『世宗實錄』, 卷 65, 3 v.

56) 卞季良, 「庚子字鑄字跋」, 『東文選』卷 103.

57) 『世宗實錄』, 卷 65, 3 v.

그렇다면 과연 이 보다 약 8세기 앞선 ‘복제’의 개념과 실행, 그리고 적어도 2세기가 앞선 금속활자의 개념과 실행은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것인가. 본인은 특히 15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활자 인쇄에 대한 일련의 논문에서 그 독창성이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도, 그것이 발명으로서 세계적인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상대적인 열세와 단점 또한 드러내 왔다. 그러나 고려 말 조선 초라는 국한적인 시대의 활자 인쇄 문화에 관한 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열세나 단점을 거론할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시기 활자 인쇄의 문화사적인 의의는 대강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동 시대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된 인쇄문화를 들 수 있다. 서양은 암흑시대(Dark Age)로 일컬어질 만큼 문화의 단절로 수도원 도서관 당 3-400권의 장서밖에 소유하지 못 했으며 필사본 한 권이 만들어지는데 1, 2년이 걸렸다. 지금이 출판대국인 일본은 우리에게서 문헌을 하사 받고 있었다.

고려의 인쇄문화는 송(宋)의 영향을 받았다. 송의 도서문화가 주는 의의는 목판 인쇄와 도서의 양질면의 우수성 이외에도 도서의 간행과 유통경로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도서의 존재이유와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이용되는” 데 있는데 북송 때는 중앙정부가 대대적인 간행사업을 펼친 반면 정부의 세력이 약화된 남송 때는 특히 절(浙), 촉(蜀), 민(閩)을 비롯한 각 지역의 개인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중에서도 서사(書肆)라고 불린 일종의 서점을 통한 상업 활동의 융성은 문헌 발전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 관청들이 중앙정부의 세력에 상관 없이 꾸준한 사업을 펼친 점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이 같은 중앙과 지방의 관판(官版), 각 지역의 개인적이거나 상업적인 사판(私版), 그 밖의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판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판각은 1종당 수 천부라는 목판인쇄를 성행하게 하였으며 그러한 분위기는 고려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종 당 부수가 송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활자의 필요성 또한 더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목판인쇄의 고조된 분위기가 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 만큼은 틀림없다.

이미 기록 상 금속활자 인쇄의 사용이 13세기 전반부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직

지』의 가치는 세계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의의로서 뿐만이 아니라 14C 후반 일개 사찰에서 이와 같은 주자인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주자를 만들고 인쇄하는 방법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적어도 13C 전반, 혹은 그 이전으로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비록 구텐베르크에 밀려 세계적인 발명으로 인정받지는 못 하고 있으나 동양에서의 그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종 당 발행부수가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중국은 나름대로의 목판인쇄의 실용성 때문에 교니활자를 비롯한 몇 가지 활자에 관한 기록이 나오기는 하나 실용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조선의 동활자의 영향을 받았으며 임진왜란(1592) 이후에 조선의 활자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고활자판(古活字版)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선활자판을 의미할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있어 금속활자의 종주국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쇄사상 이 시기의 활자 인쇄만은 서양의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에서 본 모리스 꾸랑의 『직지심체요절』에 대한 소개 외에도 1972년 ‘세계 도서의 해’에 전시되면서 “1377년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되었다”는 내용이 소개 책자⁵⁸⁾에 수록되었다.

동 시대 금속활자에 대한 관심은 여말의 활자본이 아님에도 고려조 활자본의 여부에 대해 논점을 제공해 준 『표재구해공자가어(標題句解孔子家語)』⁵⁹⁾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국서지』에 수록된 꾸랑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3권1책 4절판(서구식 장정⁶⁰⁾). 1권과 3권의 첫 장은 필사 <대영박물관15201c13>

본문과 해설이 각기 다른 크기의 약간 가는 활자로 된 우수한 고인출본인데 상단 여백에 주석이 인쇄되었다. 본문의 각 행을 나누는 수직선⁶¹⁾은 각 페이지 마지

58) 『Le Livre』,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1972, p.13

59) Maurice Courant, ibid. N. 229

이회재, 『한국서지』 N. 229

60) 歐美도서관에서는 古東洋典籍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드 커버하는 경우가 많다.

61) 界線을 말함.

막 광곽까지 미치지 않고 있는데 사토우(Satow)씨와 E플로쉬트(Plauchut)씨는 이것이 활자로 인쇄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le Royaume Solitaire, Revue des Deux Mondes, 15 fev.1884 p.894: Corea, the Hermit Nation, p.67). 문제의 계선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입증될만한 것이 못 되며 특히 3권 마지막에 나오는 '1317년 정일서점(精一書店)에서 진실부(陳實夫)가 각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아는 바로 이것은 주로 목판에 사용되는 말이다. 더욱이 많은 고본에 의해 1403년으로 활자의 발명이 고정되는 한(鑄字事實)⁶²⁾ 활자 인쇄가 13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한국인은 여기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재인출의 간기를 첨부하지 않고 중국 본을 완전히 복사한 것이다. 해설은 경유(景猷)라는 이명(異名)과 유당(猷堂)이라는 문명(文名)을 가진 왕광모(王廣謀)의 것이다. 공자의 생활에 대한 발문, 성상(聖像)의 목록, 전기, 족보, 노나라에서 금까지도 포함한 원대 1309년까지의 제국의 제식(祭式), 이 제식과 관련되는 도형 등이 들어 있다. 목차 마지막에 泰定甲子秘蒼嚴書院刊行, 즉 1324년 가을 창암서원에서 간행되었다는 간기가 붙어 있다. 이 서술 자체는 중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1317년에 시작된 조각은 1324년 완성된 것이며 13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활자 인쇄의 가설은 백지화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활자의 발명이 1403년으로 고정되었다는 오류라든가 3권말의 기록과 목차의 기록을 복합시켜 1317년 조각이 시작되어 1324년 완성되었다는 판단에 뒷받침될만한 명백한 이론이 제시되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이 남으나, 사토우와 플로쉬트가 활자로 인쇄되었다고 지적된 내용을 꾸량이 번복하는 등 고려 말 인쇄본에 대한 구미 학자들의 논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늘 인용하는 것이지만 모리스 오탱(Maurice Audin)이 그의 저서인 『인쇄사(Histoire de l'imprimerie)』에서 언급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자. “문학적 보급이 가능치 않았던 세계의 북반부의 두 지역인 한국과 라인 강변에서 거의 같

62) M. Courant, op.cit., N. 1673

은 시기에 활자 인쇄의 발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이 두 발명은 의심할 바 없이 개혁의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던 사회상과 거의 연결되고 부수된 것이다⁶³⁾.” 그러나 이 “기이한 일치”가 역사적으로는 아무런 결속이 없이 분리된 것이며 그들은 다만 “평행적 문화의 도약”이었다고 양 발명의 상호연결성을 부인하고 있으며⁶⁴⁾ 이것이 바로 구미학계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다.

오텡과 같이 많은 구미학자들이 계미자를 한국 최초의 금속활자로 오인하고 있으나 세계인쇄사 속에서의 계미자의 역할은 동서양 학자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드 빈(De Vinne)의 “인쇄술의 발명자는 종이를 발명하지 않았으며 목판 인쇄술을 만들지도 않았다. 지면상(紙面上)의 인쇄나 인쇄된 서적을 간행한 첫 시도자도 아니다. 첫 번째 인출자도, 첫 번째로 활자를 구상했거나 제조한 사람도 아닐 것이다. 그 첫 발명자는 활자주형(type mold)을 발명하여 가장 처음으로 작업을 실제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든 사람이다⁶⁵⁾”라는 언급은 계미자의 의의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 카터(T.F. Carter) 역시 “활자 주형은 활자 인쇄술 발명의 열쇠이다. 그리고 활자주형을 발달시킨 것이 한국인이며 그 점이야말로 한국 인쇄가 갖는 중요성이다.⁶⁶⁾”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미학계의 관심은 다른 시대에는 좀 체로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서 그만큼 우리의 초기 활자 인쇄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술상의 문제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13-15세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열세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획이 단순한 26개의 알파벳과 획이 복잡한 수십만자의 표의문자는, 그 구조에서부터 문선작업을 포함한 조판과정까지 그 소모시간에서 큰 차이를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그와 같은 시도를 했다는 점은 더욱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표의문자인 한자가 획이 단순한 26개의 Alphabet의 구조에 비할 바 없이 복잡하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한 번

63) Maurice Audin, 『Histoire de l'imprimerie』 (Paris: AetJ.Picard, 1972), p.31.

64) ibid., p.94.

65) Theodore L. De Vinne, 『The invention of printing』 (New York: 1876), pp.67-68.

66) T. F. Carter,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p.229.

활자를 주조할 때 계미자가 10여 만자, 갑인자가 20여 만자⁶⁷⁾였던 데 반해 그텐베르그가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 주조한 것은 동일활자, 약자, 중복활자, 연결활자 및 부호를 포함하여 290개에 불과했던 것이다.⁶⁸⁾

계미자가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활자주형의 초기 시도로서 가치를 갖는다면 양질의 큰 발전을 가져온 세종조의 활자들에 이르면 서구의 구텐베르그 활자 이전에 이미 정점에 오른 초기 활자의 기술과 문화로 큰 의미를 갖는다.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크기와 재료로 경자자(庚子字), 갑인자(甲寅字), 병진자(丙辰字), 동국정운자(東國正韻字), 한글활자 등이 만들어졌고, 특히 1434년의 갑인자는 전 조선조를 통해 수차례 보주, 개주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의 활자가 우수하다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한국의 고활자를 대표하고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중 하나로 인정받는 한글을 창제하고 그 활자를 제조한 일은 우리나라가 세계문화사에 올릴 수 있는 활자와 문자 모두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서적원의 설립이라든가 계미자 주조 시 태종의 명에서 볼 수 있는 근대적이고도 민주적인 사고의 표출이다. “주자와 도서인쇄의 업무를 맡은 도서의 부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든가 “백성으로부터의 수렴이 부당하니 조정의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이 활자의 비용을 충당하라”는 태종의 영은 서구인들에게는 14-15C 서구의 봉건사회와 대비하여 매우 민주적인 발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5. 결 언

지금까지 『직지심체요절』과 조선 초기 활자 인쇄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초기 활자 인쇄에 대해 거론하는 것으로 이미 연대적인 사실의 나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중복 거론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67) 『世宗實錄』, 卷 65, 3 v.- 4 r.

68) 『Catalog of an Exhibition』 organized by the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N. 16.

그러나 여기서는 이 모든 사실들이 고려 말과 세종 조까지의 조선 초기에 국한시켜 그 문화적 의의를 도출해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활자 인쇄 문화를 다룸에 있어 역설적이지만 인쇄 문화가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목판 인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구텐베르그로 인해 세계의 발명자에서 밀려나 있으나 동시대만 놓고 볼 때 활자의 질이나 양, 기술적인 측면 등에서 매우 우수한 것이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남다르지만 그 어느 것 다른 분야보다 구미 학계가 보여주는 관심도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세계의 학계에서 아직도 우리의 초기 활자 인쇄가 그 독창성과 장점에 걸 맞는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학계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究堂, 1974.
- 金世翊, 『圖書-印刷-圖書館史』, 서울: 종로서적, 1982.
- 孫寶基, 『금속활자와 인쇄술』, 『교양국사총서 21』, 1976.
- 이희재, 『조선 전기 인쇄 기술의 발달』, 『한국고활자 학술회의,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p.89-111.
- _____, 「15-16C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시대의 서양 도서의 형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 1(1997), p.215-229.
- _____, 「東西洋 初期活字印刷方法에 관한 比較研究」, 『國會圖書館報』, 22; 4(1985, 7-8), p.5-16.
- _____, 『韓國近代社會經濟史研究』, 『世宗年間の 印書事業에 관한 綜合的 考察』, 서울: 正音文化社, 1985, p.181-208.
- _____, 「朝鮮建國初 印書文化의 意義」, 『圖書館學』, 13輯, 1986, p.121-142.

李姬載, 『改訂版 書誌學新論, 문헌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실제』,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2003

——, 모리스 꾸랑 原著, 『韓國書誌, 修正翻譯版』, 서울: 一潮閣, 1994.

張秀民, 『中國印刷術的發明及其影響』, 北京: 人民出版社, 1958, p.208.

千惠鳳, 『韓國古印刷史』, 서울: 도서관학연구회, 1976, p.331.

Audin, Maurice, *Histoire de l'imprimerie*, Paris: A. et J. Picard, 1972.

Carter, Thomas Francis,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New York: Ronald Press, 1955.

Dhal, Svend, *Histoire du livre*, Paris : Edition Poinat, 1967.

Fevbre, Lucien, et Henri Jean Martin, *L'apparition du livre*, Paris: Albin Michel, 1971.

Gaur, Albertine, *A History of writing*, rev. ed., The British Library, 1992.

La chose imprimée, histoire, techniques, esthétique et réalisation de l'imprimé, sous la direction de John Dreyfus et François Richaudeau. Paris : RETZ, 1977.

Lee, Hee-Jae, 『Etude comparative des techniques typographiques en Occident et en Orient』, *Le Livre et l'Historien*, Geneve: DROZ, 1997, p. 75-84.

Lee, Hee-Jae, *Typographie Coréenne au XVème siècle*, Paris: Edition du C.N.R.S., 1987, p.209.

Le Livre,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1972, p.13.

Martin, Henri Jean, *Histoire et pouvoirs de l'écrit*, Paris : Perrin, 1988, p.518.

Mcluhan, Mashall, *La galaxie Gutenberg* 2(1977), Paris : Gallimard.

Techniques graphiques, Paris: Fédération Nationale des Maîtres Artisans et Petites Entreprises des Métiers Graphiques, 700 diapositives, 15 bandes sonores, 15 livrets d'accompagnements.

<http://www.jikjiworld.net>

『조선왕조실록』 CD, 1995, 4 disc.